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2월이되면 무슨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느껴 지십니까? 저는 12월이되면 아프리카 생각이 더욱 간절하게 듭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 면서부터 레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악을 들을 때 마다 아프리카에서 했던 모든일들이 생각나면서 자꾸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12월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달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기전에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는 여러가지 이름을 갖고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명과 함께 ‘애칭’ 이나 ‘별명’ 이 있듯이 예수님도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에는 모두가 그에 합당한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지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중 가장 사랑했던 아이에게 ‘요셉’ 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께서 더 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삶이었습니다. ‘야곱’ 은 어떻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은 어떻습니까? ‘사랑 스러운자’ 즉 사랑으로 가득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는 어떻습니까? “사랑 받는’ ’ 고귀한’ ’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은 어떻습니까? ‘작은자’ 입니다. 이렇듯 각각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때 어떤 목적을 갖고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에 걸 맞는 뜻이 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 이라는 이름의 뜻과 영적인 의미에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의미

‘임마누엘’ (Emmanuel)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라는 히브리어 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엘’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임마누’ 즉 ‘우리와 함께하다’ 라는 말과 합성이된 이름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4 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 즉 ‘말씀’ 으로 계셨던 ‘예수님’ 을 의미 합니다. 이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처음으로 예언된 것이며(사 7:14) 이는 예수님께서 오시기전 700년전에 있었던 대언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 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겸손하신 분 이십니다.(빌 2:6-8)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2000년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 하기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말하는 위대한 선생이나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 임마누엘이란 이름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의미

임마누엘에 담겨있는 이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spiritual meaning of Emmanuel)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 즉 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이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끊임 없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했을까요? 먼저는 히 2 장 14-15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자 곧 마귀를 멸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얹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 장 23 절 말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서 ‘죄의 값’ 대로 죽음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구원은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으로 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질병 고난 고통... 그분께서도 아팠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난 고통은 죽은자 가운데에서 삼일만에 부활하시므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기 위함입니다(롬 3:24)

3. 임마누엘 사건 이후 신자의 삶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이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2000 년전에 이 땅에 계셨던 것 처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뿐 ‘임마누엘’의 의미처럼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 3 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오셔서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시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요 14:16)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 28:20)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사역 현장에 그리고 선교지에 가르치는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바른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과 다시 만나게되며 ‘임마누엘’의 진정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4.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므로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 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셨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왕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맘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서 크신 영광 돌리네”

ATLANTA LOVE KOREAN BAPTIST CHURCH